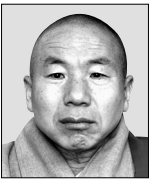


일주문



56회 팔만대장경의 날 향적 합천 해인사 주지 스님은 4월 29~30일 경내 일대에서 '제56회 불기2560년 팔만대장경의 날'을 봉행한다.



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 돈관 영천 은해사 주지 스님은 3월 27일 대구 불광사 만불보전에서 '제34기 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다.



군승 안거수행 포살 정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스님은 3월 29~31일 구례 화엄사에서 '군승 안거수행 포살'을 실시했다.



13차 힐링멘토 영상 여행 마가 (사)자비명상 대표 스님은 4월 2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제13차 53힐링멘토를 찾아 떠나는 명상여행'을 개최했다.



행복 나누는 바자회 화평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장 스님은 3월 30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행복을 나누는 바자회'를 개최했다.

한부모 청소년들에게 1천만원

(사)깨달음과나눔, 총 24명 수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육아 및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깨달음과나눔이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깨달음과나눔(이사장 이매옥)은 3월 2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한부모 가족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24명(중학생 10·고등학생 14)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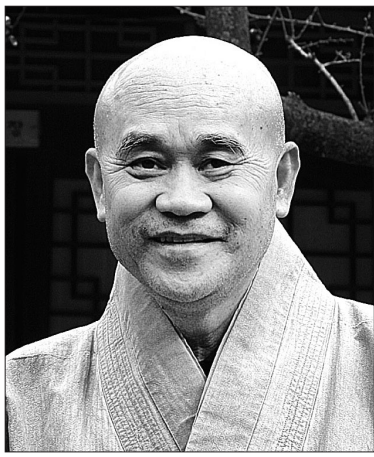
이매옥 이사장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나, 미혼부모가 된 청소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가출, 일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있다"면서 "그들의 향학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을 완만히 마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불사를 시작했다. 향후 재원이 확충되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더 많은 한부모가정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깨달음과나눔은 지난 3월 7~18일 장학금 지원 신청을 받았다. 이에 총 93명이 지원, 6.64:1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아름 기자

“총림 위상 걸맞은 도량 만들 것”

Interview

제27대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범어사는 선찰대본산이다. 그 근본 뜻을 이어 선 수행 정신을 강조하며 수행 가풍을 총림의 위상에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부 불사다. 또한 동산 스님의 이념이 곧 총림의 역할이다. 따라서 동산 스님의 이념을 고수하고 방장 스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수행자들을 위한 바른 수행도량이 되도록 하겠다.”

범어사 제27대 주지로 임명된 경선 스님(사진)은 3월 29일 경내 종무소 합홍당 앞 국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범어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수행을 꼽았다. 이를 위해 방장 지유 스님을 위시해 사내대중스님들과 수행 가풍 진작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범어사 내 화합을 중요 과제로 보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답”이라며 모두 함께 노력하는 자세로 각자 소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선 스님은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범어사에서 지내며 화합을 저해하는 많은 문제들을 보고 들었다. 해답은 서로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편처럼 경선 스님은 사내 7직 소임을 각 문중에 맞게 안배했다. 부주지 설파 스님, 총무국장 정산 스님, 교무국장 범수 스님, 포교국장 능주 스님, 호

문중 화합 위해 7직소임 안배 수행가풍 진작·문화포교 계획 “중과 떠나 부산불교 하나 돼야”

법국장 정일 스님, 재무국장 원타 스님, 사회국장 응진 스님, 연수국장 성광 스님, 문화국장 성공 스님, 원주 현어 스님, 도감 도봉·묘중 스님이 내정됐다.

경선 스님은 범어사 내 선 수행센터 등 불사에 대해서도 진일보하는 마음으로 차질 없이 계획하고 진행할 것을 밝혔다. 특히 범어사 내 박물관 불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화 포교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스님은 “15년 간 범어사 박물관 관장을

역임하며 속원 사업으로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박물관 불사다. 현재 성보박물관은 도서관이나 여러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범어사에서는 문화 행사를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공간을 여유 있게 지어 내부 행사 뿐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회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범어사 주지뿐만 아니라 부산불교연합회 회장직도 수행해야 하는 경선 스님은 “현재 부산불교에는 여러 종파가 함께 있다. 하지만 조계종연합회, 승가연합회 등으로 나눠져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여러 단체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선 간섭할 수는 없으나 부산불교연합회라는 큰 틀에서는 종파에 상관없이 모두 함께 어울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부산불교연합회가 주도하는 부산연등축제 및 신년하례 등 큰 행사에 승가연합회는 별도로 진행해 왔다. 앞으로 하나로 묶어 함께하는 화합의 모습이 되도록 의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는 4월 11일 오후 2시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주지 진산식과 부산불교연합회 창립식을 함께 봉행한다. 그간 다르게 실시했던 행사를 통합한 것은 허례허식을 버리고 내용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부산=하성미 기자

법상종, 경기 종무원 개원

3월 25일, 종무원장에 원각 스님



대한불교법상종(종무원장 해월)은 3월 25일 여주 대성사(주지 원각, 여주군 금사면) 극락보전에서 ‘경기도 종무원 개원식 및 경기 종무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무원장 해월 스님, 원로위원 학산 스님(대성사 회주), 중앙총회회장 대광 스님, 신임 경기종무원장 원각 스님 외 종단 임원 및 종도 150여명이 동참했다.

원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법상종의 대의 홍보와 교세 확장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민추본, 10인 ‘통일인재’ 배출

제1기 불교청년통일기획자과정 수료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범타, 이하 민추본)는 3월 2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1기 불교청년통일기획자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과정 참가자들은 통일관련 총 6강의를 수강했으며, 3월 26~27일엔 현장순례로 고성 남북접경지역을 방문했다. 이에 최초 신청자 11명 중 10명이 수료했다. 박아름 기자

불교국제개발협의회의, 2차 정기총회

2016 예산 및 사업계획 등 심의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는 3월 22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프로그램실에서 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선 2015 결산 및 사업보고, 2016 예산 및 사업계획 등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는 2015년 3월 창립 이후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하며 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참사람 양성 대학 만들겠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대원 총장 취임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대원 총장 취임식 및 참사람 동국 비전 선포식이 3월 30일 오전 11시 교내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취임식 및 비전선포식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 성타 스님,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등을 비롯한 내빈과 기부자, 동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대원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발전 목표를 지방 3대 사립 대학으로 정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참사람 양성대학을 비전으로 이 위기를 헤쳐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연구와 산학협력, 국제 및 대외협력, 행정 서비스, 재정인프라 등 5대 혁신분야에 대한 86개 핵심과제를 발전 계획에 담아, ‘지속발전 가능’ ‘소통과 화합’ ‘가치 중심의 의사결정’을 경영원칙으로 하고, 내실화, 전문화, 지역화, 국제화, 특성화를 발전전략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정도원 ‘봉화산 메아리’ 발표회



경남 김해 봉화산 정도원이 창단한 ‘봉화산 메아리’가 3월 26일 정도원 경남 쉼터에서 첫 발표회를 개최했다.

경남 김해 봉화산 정도원(원장 선진규)이 창단한 ‘봉화산 메아리’가 발표회를 통해 첫 선을 보였다.

3월 26일 정도원 경남 쉼터에서 열린 첫 발표회에는 선진규 원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무대는 색소폰과 기타, 가야금 등 악기 연주와 민요, 클래식, 대중가요 등 노래 부문 그리고 춤 공연으로 이어졌다.

‘봉화산 메아리’는 스님과 신도 10여 명으로 구성된 음악단이다. 정도원 총장 스님이 악단장이며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창단했다.

앞으로 ‘봉화산 메아리’ 음악단은 매달 한 차례씩 정기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포교 현장을 비롯해 지역 내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음악 봉사활동을 펼친다.

선진규 원장은 “김해 지역은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이다”며 “불자들뿐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등산객까지 모든 이들이 쉽게 얻기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창단 배경을 밝혔다. 김해=하성미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 임원선출 회의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가 회원 여러분의 종단에 항상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본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대한불교 종단총연합회에서는 이미 선출되어 활동하셨던 임원의 임기가 만료 되어 이에 본회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 총연합회의 발전을 도모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공고 하오니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사)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에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종단대표 및 관심있는 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아 래

- ▲ 회의일시 : 2016년 4월 17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회의장소 :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 255 AW컨벤션센터(구하림각) 3층 아젤리아룸
- ▲ 회의안건 :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 임원 선출에 관한 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연합회 033)671-7751, 사무총장 010-3300-0408 산수스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 이사장 의 료

재단법인 근본불교 조계종 분한신고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가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근본불교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 종도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분한신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간 내 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재)근본불교 조계종 승려로서 자격이 정지 또는 말소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암의 주지스님은 물론 모든 승려께서는 (재)근본불교 조계종 총무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근본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로 계시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분들도 분한신고를 하시면 선별구제 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본종에 가입된 개인사암의 재산을 인정해 주는 사유재산 보호법과 근본불교 조계종 재단법인 재산보호법 등을 재정하기 위하여 중헌중법을 2016년 4월 5일자로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 실시기간 : 2016년 4월 11일 ~ 2016년 5월 28일
- ▲ 대상승려 : 제적, 탈종된 승려 및 본 종단에 입종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승려 및 법사
- ▲ 접수장소 : 재단법인 근본불교 조계종 총무원 사무실
- ▲ 제출서류 : 분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3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총무원 전화 033)671-7751~4로 문의 바랍니다.

재단법인 근본불교 조계종 이사장 의 료